한국지리학회지 6권 1호 2017(1~13)

베트남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영토교육

이상균* · 최희** · 융 티 탄 프엉*** · 김종근****

The Issues on Sovereignty of the South China Sea, and Vietnam's Territorial Education

Saangkyun Yi* · Hee Choi** · Duong Thi Thanh Phuong*** · Jong-geun Kim****

요약 :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독도영유권 및 동해 표기명칭 문제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베트남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영유권 문제에 직면해 있는 베트남의 대응방식과 영토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베트남 사회과학원, 동해연구재단, 베트남 법가회 등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동해 관련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동해연구재단에서는 다양한 학술상 시상을 통해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은 SNS를 통해 중국의 불법 행위와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 세계로 전파함으로써 해외의 네티즌들로부터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교에서는 동해상의 섬들에 관한 특강을 듣기도 하고, 학생들 스스로 베트남 영토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함으로써 영토수호에 대한 의지를 배운다. 또한 역사, 지리, 시민교육, 국방교육 등 정규 교과를 통해 체계적인 영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어 : 베트남,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도서영유권 분쟁, 해양명칭 논쟁, 영토교육

Abstract : Vietnam and Korea have a lot of aspects similar both in historically and geopolitically. Especially, the difficulties that Vietnam is going through, due to the sovereignty issues surrounding the South China Sea, has much to suggest us. For Korea, who is facing difficult national issues such as the sovereignty of Dokdo island as well as the naming of 'The East Sea' etc., the timing seems just right in reviewing the Vietnam's case stud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Vietnam's response methodology and the status on territorial education regarding the sovereignty issues they are facing.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n Vietnam, the East Sea (Biển Đông) related academic conferences are led annually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Vietnam Diplomatic Academy,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East Sea (Biển Đông) Research Foundation, and Vietnam Legal Society. The East Sea (Biển Đông) Research Foundation offers a variety of academic awards in order to encourage researchers' interests and participations. In addition to the academic researches, Vietnamese people, via SNS, are propagating throughout the world the illegal activities by Chinese and their unfair situation that they face, in order to attract worldwide netizens' interest and sympathy. At school, students strengthen their determination in protecting their territories by listening to lectures on 'The Islands' in the East Sea or by participating themselves in performances that symbolize the Vietnamese territory. In addition, a systematic territorial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through the regular courses such as History, Geography, Civic Education, and Defense Education.
Key Words : Vietnam, South China Sea, Paracel Islands, Spratly Islands, Disputes over ownership of the islands, Disputes on the maritime place name, Territorial educ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kyigeo@gmail.com)
**인하대학교 박사수료(Ph.D. Candidate, Inha University, eksrns06@naver.com)
***인하대학교 석사과정(Master Student, Inha University, thanhphuongdlu@daum.net)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gkim76@nahf.or.kr)

I. 서론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중국 중심의 유교문화권에 속했으며, 19세기 후반부터 1945년까지는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해방 후, 남북으로 분단되었다가 베트남 전쟁을 치른 후 1975년에 공산화되었다. 이와 같이 베트남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과 해양명칭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호앙사군도(영어명: Paracel, 베트남명: Hoàng Sa), 쯔엉사군도(영어명: Spratly, 베트남명: Trường Sa)의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분쟁중이며, 남중국해 명칭에 대해서도 그들의 동해(Biển Đông) 명칭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간 외교상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세계지도에 동해 표기명칭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각 분야의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 학술회의를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독도영유권의 근거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을 통해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육에 대응하여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동해 표기명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유엔지명전문가회의 등 다양한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독도영유권 문제와 동해 표기명칭 확산 등 해영영토 수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와 사례가 유사한 베트남의 현황과 대응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우리의 독도·동해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영유권 문제에 직면한 베트남의 대응방식과 영토교육 현황을 소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연구된 베트남에 관한 연구는 주로 ① 결혼 이주, 다문화가정, ② 남중국해 도서 분쟁, 해양자원, ③ 베트남 전쟁, 한반도 분단, ④ 베트남 한류, 한국어 교육, ⑤ 기업의 베트남 진출, 현지화, ⑥ 베트남의 도시계획, 인프라 구축, ⑦ 아세안 경제 공동체, 교역 등과 같이 대별된다. 반면, 베트남의 영토교육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의 영유권 분쟁 현황, 영유권 강화를 위한 노력,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영토교육 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호앙사군도와 쯔엉사군도 및 바다명칭 논쟁에 관하여 검토하고, 영유권 강화를 위한 노력은 학술적 측면, 홍보방식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영토교육에 대해서는 교내활동과 교육과정상의 관련 내용들을 교과별로 추출·분류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관련 분야별(남중국해 영토갈등 연구-유철종, 2005; 신성원, 2006; 김성광, 2015; 베트남 해양 경계획정 연구-응웬 티 한, 2015; 베트남의 영토 확장 연구-김기태, 1992; 송정남, 1999; 송정남, 2012 등)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본 연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남중국해 도서 분쟁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는데, 베트남 정부의 영유권 강화 노력과 영토교육 등 관련 연구는 전무함으로 현지의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검토하고, 영토해양연구 관련 현지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II. 베트남과 한국의 지정학적 특징

동아시아에서 베트남과 한국은 대륙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북방 이민족과 해양 세력의 침략을 수없이 받아왔다. 또한 근대 시기에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식민통치를 겪은 공통점이 있다. 반도국가로서 베트남은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을 겪어 왔으며, 한국은 일본의 독도 도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 위치하고 있는 쯔엉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1960년대 후반 석유와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터 시작되었고, 1974년 1월에는 베트남이 호앙사 군도의 일부를 점령하면서 중국과의 본격적인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유철종, 2005:4). 이 지역은 석유 시추권 문제뿐만 아니라 극동과 유럽을 잇는 말라카 해협과 인접한 곳으로서 경제적, 전략적으로 비중이 큰 지정학적 특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과 중국 등 역내 국가 간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베트남은 건국 후 약 천년간(BC 179-AD 938)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한동안 독립을 유지하다가 명나라의 침략으로 또 다시 중국의 지배를 받는 등 몽골, 원나라, 청나라 등 북방 이민족의 침략을 수없이 받았다(신승

복 · 최재영, 2015:125). 갑술조약(1874) 이후 중국은 프랑스와 베트남간의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는 한편, 조선에 대해서는 다른 서방국가들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프랑스와의 외교협상을 통해 베트남의 분할지배를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불전쟁까지 일으켰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어두웠던 조선과 베트남은 개혁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였다.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베트남 및 인접국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신승복 · 최재영, 2015:151).

중국 당나라의 원조를 받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황해를 중심으로 하나의 강력한 중국 경제권, 중국문화권을 구축하고자 했던 중국은 한반도를 그들의 속국으로 삼고자 하였다.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세워진 후, 한반도는 끊임없이 외부 세력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프랑스와 러시아, 영국, 미국, 일본까지도 거대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조선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중국은 세계열강의 대열로 나아가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한반도의 친중 세력을 중심으로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루이 아르작, 2014:111-113).

19세기에는 서방국가들이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조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1832년 영국은 우리나라에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 황제의 동의 없이는 개별적으로 통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신승복·최재영, 2015:131). 1846년에 천주교 박해를 빌미로 프랑스가 조선에 압력을 가했을 때에도 청나라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였다. 또한 1866년에 미국의 제너럴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조선은 중국과의 조공, 책봉관계를 구실로 통상관계를 거절하였고, 1869년에 일본이 조선에 관리를 파견하였을 때에도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

그러다 대륙진출과 함께 세계를 장악하려던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선의 동태를 살피다가 친일세력을 이용하여 한반도 진출에 성공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일본에 조선이 예속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다. 이때부터 한국은 35년간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1945년, 한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였지만, 냉전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결국 6.25전쟁을 치르며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게 된다. 3년간의 전쟁은 유엔과 중국과의 협정에 의해 휴전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양자의 의지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 때문이다. 한반도는 이미 근대화 초기부터 열강들이 탐욕스럽게 바라보는 땅, 또는 그들의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왕국과 같은 존재로 보여졌던 것이다(루이 아르작, 2014:114).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영토는 주변국과 역사인식 문제로 갈등을 겪을 소지가 다분하며, 이 또한 영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이 직면하고 있는 도서 영유권 분쟁 및 해양명칭 분쟁의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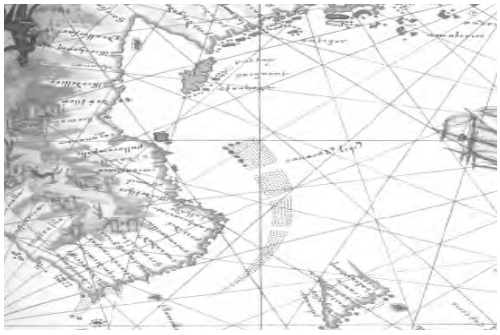
III. 남중국해에서의 베트남과 중국의 도서 영유권 분쟁

1. 파라셀 ·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

베트남과 중국은 파라셀(Paracel)군도(베트남명: Hoàng Sa, 중국명: 西沙)와 스프래틀리(Spratly) 군도(베트남명: Trường Sa, 중국명: 南沙)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남중국해 해상에서의 영유권 분쟁은 2011년 6월 중국이 명확한 해상 경계선을 제시하지 않고 남중국해에 위치한 모든 섬과 영해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함으로써 격화되었다. 베트남의 학술연구에 따르면, 파라셀 군도는 1541년 세계지도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며, 이후 지도상의 명칭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16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제작된 지도를 보면, 파라셀(Paracel)은 베트남 동해상에 있는 '우각(牛角)' 형태의 사초(沙礁)로 확인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초는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인들은 18세기에 이 섬을 초승달 모양(Lunettes)의 군도로 여겼는데, 1808년부터 이 섬은 서사군도(西沙群岛)라 불렀다. 1832년 이후, 유럽에서 제작된 지도에 '牛角'은 사라졌지만, 1840년대 이후 베트남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1845년 이후 파라셀(Paracel)은 서사군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Xu and Cao, 2014:34).

스프래틀리 군도는 남중국해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a) Dieppe School(프랑스), 1547, '우각' 모양의 사초

(b) Philippe Buache(프랑스), 1705, Pracel and 'Lunettes'

(c) 세계잡지사(영국), 1743, Lunettes or Spectacle

(d) J.B.B.D'Anville(프랑스), 1794, 서사군도

그림 1. Pracel 군도의 초기 출현과 명칭 변천과정

출처 : Xu and Cao, 2014:21~24.

동쪽으로는 필리핀의 팔라완 섬과 보르네오 섬과, 서쪽으로는 베트남과 접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섬은 지리적으로나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중국해군과 해양경비대를 파견하여 분쟁 국가들의 선박을 나포하는 등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극에 달하고 있다(변창구, 2013:13).

그림 2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현황을 보여주며,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변천사는 표 1과 같다.

1884년 베트남의 후에(Hue) 왕조와 프랑스 사이에 갑신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통치는 정식으로 승인되었고,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는 서구의 강대국 프랑스의 출현으로 중국과 프랑스 간의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되었다. 1930년대에는 일본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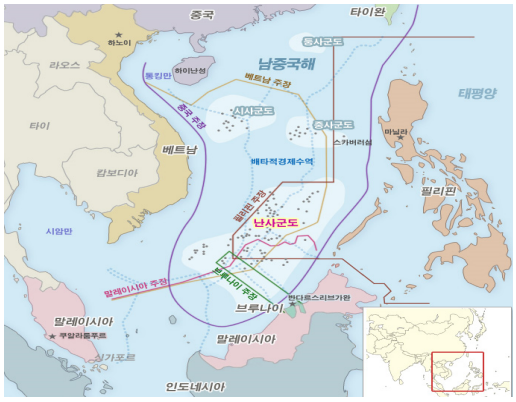


그림 2. 남중국해의 영유권분쟁 현황

출처 : 두산백과 홈페이지.

가세하면서 이 두 섬에 대한 영유권 쟁탈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편,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과 청나라 간의 국경획정 문제는 프랑스와 청나라 사이에 1887년

표 1.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 분쟁사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1907년 프랑스와 중국이 남중국해(Bien Dong)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틈을 타 프라타스(Pratas)섬에 일본인이 거주.	1920년대 일본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작은 섬에 사람을 거주하게 하고 상업활동 개시.
1909년 일본은 동사군도 침공.	1930년 4월 프랑스는 스프래틀리 군도에 속한 바오또(Bai To) 섬에 순찰정 파견, 영유권 주장을 위해 깃발을 세움.
1909년 5월 중국 광동성 지방정부는 파라셀 군도에 불법 조사 강행함.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스프래틀리 군도는 일본에게 더 없이 중요한 '발판'이 됨.
1921년 중국 광동성 지방정부는 파라셀 군도를 해남도 행정단위로 편입.	1940년 일왕은 스프래틀리 군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일본통치하에 있던 대만의 행정단위로 편입한다는 의정서 발표. 그 후, 태평양 전쟁기에 일본은 이 섬을 군사요충지로 활용.
1930년 중국 광동성 지방정부와 1931년 중국 중앙정부는 파라셀 군도에서 인산염개발 탐사 승인 요청에 따라 영유권 분쟁시작.	1946년 일본의 패망 후, 프랑스가 다시 들어와 중국과 영유권 분쟁에 가세.
1931년, 1937년 프랑스는 두 차례에 걸쳐 국제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방법을 선택.	1949년 국민당의 패전 후, 스프래틀리 군도로부터 군대 철수, 그 자리엔 중국 해방군이 다시 점령.
1937년 10월 프랑스는 영유권 확정 후에 파라셀 군도에 작은 등대 설치.	1951년 9월 7일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한 베트남 총리 쩐 반 흐우(Tran Van Huu)는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베트남 영유권을 정식으로 선포.
1938년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침략시작, 파라셀 군도의 푸럼도에 군대파견.	1954년 7월 20일 제네바협정이 체결되면서 베트남의 독립이 인정되었으나, 얼마 후, 남북으로 분단됨.
1938년 3월 프랑스는 호송함을 파견하여 표지석 설치.	1956년 프랑스는 정식으로 베트남에서 철수, 남베트남 영토를 베트남 공화국에 넘겨주고, 베트남 공화국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군대를 파견하고, 주권 표지석을 세움. 이시기 이들 두 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만·필리핀 등장.
1939년 7월 인도차이나 총독부는 파라셀 군도를 트러티엔(Thua Thien)성에 편입을 결정하고, 1945년 일본의 패망시까지 점유.	1956년 8월 프랑스군이 베트남에서 철수, 베트남 공화국 정부의 해군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표지석을 세움.
1946년 일본이 파라셀 군도에서 군대를 철수한 후, 프랑스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와 영유권을 재확립.	1956년,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스프래틀리 군도의 행정관리에 관한 규칙 발표.
1947년 1월 중국 국민당이 프랑스의 군사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틈을 이용하여 푸럼도 점령, 영유권 선언. 그 후 프랑스 '순양함'을 파견.	1974년 1월 19일 중국은 파라셀 군도에 주둔하고 있는 베트남공화국의 군대를 침공하여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음.
1950년 4월 중국 국민당의 패망으로 푸럼도로부터 군대를 철수한 이후, 다시 중국의 공산당 군대인 해방군이 주둔.	1975년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통일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에 대한 영유권 수호를 강화하고 있음.
1950년 프랑스 정부는 파라셀 군도에 대한 제어권을 바오다이(Bao Dai) 정부에 이양.	1981년 12월 베트남 정부는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가 베트남의 영토'임을 공포.
1954년 프랑스는 베트남 정부에 정식으로 파라셀 군도에 대한 관할권을 넘겨줌.	1982년 베트남정부는 쯔엉사(스프래틀리)현을 신설함.
1979년 7월 중국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공표.	1988년 3월 14일 중국 전투함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주둔한 베트남 군을 침공, Da Chu Thap, Da Chau Vien, Da Ga Ven, Da Tu Ngia, Da Gac Ma, Da Subi 섬을 점령하고, 1989년 1월에 영주권 주장 위한 비석을 세움.
1984년 4월 중국 지명위원회는 파라셀 군도 및 스프래틀리 군도에 속한 섬을 해남도 행정구역에 편입.	1988년 5월 양측 해군 간에 교전이 발생하여 베트남 군함 3척이 침몰, 베트남 해군 70여명 사망.
2007년 해남도에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三沙市창설에 관한 법률 통과.	1989년 3월 중국해군, 스프래틀리 군도에 최전방본부 설치.
2012년 6월 20일 베트남이 해양법 제정,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자국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	1992년 2월 중국, 남중국해 및 조어도를 포함하는 영해법 공포.
2014년 5월 중국이 파라셀 군도를 포함하는 베트남 영해에서 HD-981 플랫폼 143광구를 설치하여 국제적으로 논쟁거리가 됨.	1992년 6월 베트남, 미국의 크레스톤사와 분쟁지역 내 석유시추 계약.
	1992년 8월 중국, 스프래틀리 군도의 2개 도서 추가 점령.
	2002년 11월 아세안-중국, 남중국해 분쟁 방지를 위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문 채택.
	2007년 4월 베트남,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유전개발 계획발표.

* 변창구(2013)와 Nguyen(2015)의 연구 성과를 재구성하고 추가보완한 것임.

과 1895년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프랑스와 청나라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이후의 역학관계에 근거하여 국경획정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베트남은 '1887년과 1895년에 체결된 프랑스와 청나라 간의 조약에 근거하여 획정된 국경선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입장이다(Nguyen, 2015:41).

중국이 본격적으로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 해역에 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유엔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조사보고서가 나오면서 영유권 분쟁이 촉발되었고, 1984년에는 이 섬에서 무력충돌까지 일어났다. 1992년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 영해법을 공포하고, 1994년에는 이 해역에서 석유탐사를 추진하는 등 베트남과의 갈등은 격화되었다. 한편, 필리핀이 2009년에 스프래틀리 군도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하는 영해기선법을 공포하고, 2011년에는 타이완까지 영유권 선포에 가세하였다. 2012년도에는 중국이 싼사시(三沙市)[1]를 출범시킴으로써 관련국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실제로 스프래틀리 군도는 230여개의 섬과 암초, 사주(砂洲)로 구성되어 있는데, 베트남이 24개로 가장 많은 섬을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섬과 암초는 10곳, 필리핀이 7개, 말레이시아 6개, 타이완과 브루나이가가 각각 1개씩 지배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북아 역내의 패권경쟁은 남중국해를 기점으로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1년 6월 9일 중국이 태평양 공해상에서 정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자 다음날 베트남은 2011년 6월 13일 남중국해에서 실탄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맞섰고, 필리핀도 2011년 6월 28일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혀 해양영토 분쟁은 무력시위 국면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2016년에 들어서면서 필리핀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하여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부터 한발 물러나자[2] 주변국들 사이에서도 다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도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문제를 접어두고 '베트남식 실리외교'의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을 선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3],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7월 중국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분쟁 재판에서 패한 뒤, 중국은 이 해역에서의 군사행동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베트남 또한 중국의 인공섬을 타격할 수 있는 로켓 발사대를 배치하는 등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4]

2. 베트남과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명칭 논쟁

오늘날 동아시아에는 서너 개의 서로 다른 동해(East Sea) 명칭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세계지도에 정착된 중국의 동해 명칭은 동중국해(East China Sea, Dong Hai)로 표기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명칭이 한국측 입장의 동해(East Sea)와 기존의 일본해(Sea of Japan) 명칭이 병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트남 정부 또한 현재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명칭으로 정착된 수역의 명칭에 대해 그들의 동해에 해당되는 Biển Đông(East Sea) 명칭이 세계지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림 3).

Biển Đông(동해)은 오래 전부터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불려온 그들만의 고유한 명칭이며, Biển Đông 명칭에는 베트남 국민들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진 것처럼 보인다. 베트남에서는 1945년 이래로 공식 문서에 Biển Đông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 베트남에서 이 명칭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 1975년 이후, 베트남에서는 Biển Đông 명칭에 대한 국제적인 표기명칭을 "Bien Dong Sea"로 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베트남 학자들과 해외 학자들 중에서는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명칭을 "동남아해(Southeast Asia Sea)" 또는 "베트남해(Viêt Nam Sea)"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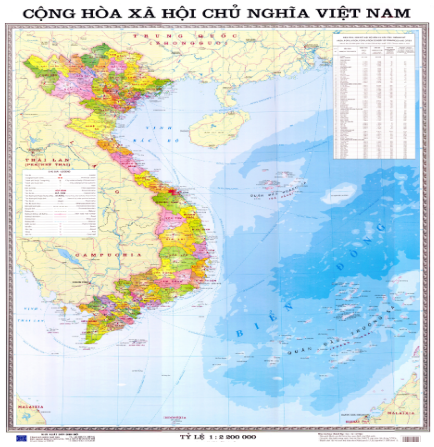


그림 3. 베트남의 동해(Biển Đông) 명칭
출처 : 베트남 해양경계 홈페이지.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하노이국립사범대 교수 Nguyen Thi Hanh와 2015년 04월 20일자 인터뷰).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일대에서는 식민지를 경영했던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에 역사 인식문제, 영토문제 등 탈식민지화에 따른 일련의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일본해 명칭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바다명칭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민감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유엔가입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동해(East Sea) 명칭이 일본해 명칭과 병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5] 19세기 말까지 한국의 동해를 지칭했던 명칭은 다양했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일제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동해 명칭을 일본해로 등록함에 따라 일본해 명칭이 국제 표준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이 한국측의 설명이다(Yi, 2014:30).

Biển Đông(East Sea) 명칭의 표기를 주장하는 베트남의 사례도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이나 베트남이 식민지 상태로 있을 때에는 외교권도 없었으므로 그들의 권리를 국제사회에서 제기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나 해방 후, 이들 국가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한국과 베트남 모두 '동해'라 부르고 있는 바다를 민족적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상징적 공간으로 여기고, 세계지도 상에 그들의 동해 명칭이 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당국과 관련 분야의 학자들은 그들의 동해명칭 확산 방안을 모색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안전한 항행을 위해 바다명칭의 표준화를 이끌고 있는 국제수로기구(IHO)나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GEGN) 등 국제기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일한 명칭을 동아시아에 두 개 이상 부여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6]

IV. 베트남의 영토수호 의지와 영토교육

전술한 바와 같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영유권 문제가 첨예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그들의 동해 명칭 회복과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연구, 홍보,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1. 학술연구와 국제홍보

베트남과 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이 베트남 사회에서 심각하게 인식됨에 따라 베트남 학계에서는 2000년도부터 동해(Biển Đông)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자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Nguyễn(2003; 2014)은 베트남 봉건시대 응웬왕조(Triều Nguyễn)의 사료를 비롯하여 서양 및 중국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파라셀 군도 및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4년 5월, 중국이 석유시추선인 해양 981호를 설치하고 석유를 시추하는 사건이 발생된 직후부터 동해를 연구하는 베트남 학자들은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관련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예컨대, Lê Vĩnh Trưởng은 중국이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 통신전(media warfare), 그리고 법리전(legal warfare) 등 3가지 전략을 통해 동해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에 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베트남 탄니언신문 2015년 2월 26일자). 같은 맥락에서 Nguyễn T.는 중국이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라셀 군도 및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해 불법적으로 그들의 영유권을 확립하려 한다고 지적하였다(베트남 국제연구 홈페이지 2015년 5월 24일자).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동해 관련 학술대회도 2009년에 최초로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최근의 한 사례를 보면, 2016년 11월 5일에 베트남 냐짱시(Nha Trang)에서 '동해: 지역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DAV)[7], 동해연구재단(FESS)[8] 및 베트남 법가회(VAL)[9] 등이 주최하였다. 학회에 참가한 학자들은 동해를 둘러싼 지역 현황, 동해에 대한 법리 · 경제 · 정치 · 역사적 분쟁 및 해당 지역에서의 분쟁의 대한 관리 및 해법 또는 전망에 관하여 토론하였다.[10]

베트남 동해연구재단에서는 전문가들이 동해를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연구원 및 대학원생들이 동해 연구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동해연구 관련 '학술연구상'을 수여하고 있다. '동해 관련 학술연구상(Giải thưởng công trình nghiên cứu Biển Đông: Awards for East Sea Research Works)', '동해 관련 기사상(Giải báo chí xuất sắc về biển Đông: Awards for Articles in East Sea)', 그리고 동해 관련 '최우수 학술연구상(Giải

그림 4. 학술저널 표지: 동해연구 사례
출처 : 베트남 사회과학 아카데미 홈페이지.

bài nghiên cứu xuất sắc về biển Đông: Awards for Outstanding East Sea Researchs)' 등은 이러한 사례이다.

동해 관련 연구대상은 국내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연구상'이며, 이에 해당하는 연구의 형태는 소논문 또는 학위논문이다. 평가 기준은 연구결과가 학술 연구의 수준을 충족해야 하며, 연구 내용은 현재 동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는 심도 있는 평가, 분석 및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동해 관련 기사상은 기자들을 위한 상이다.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된 모든 동해에 관한 기사들이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상의 평가 기준은 관련 기사가 정확하고 예리한 평가 및 분석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독자들이 동해에 관심을 갖게 하고, 베트남의 동해 문제에 대한 입장 및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동해 관련 '최우수 학술연구상'은 동해를 연구하고 있는 국내외 학자, 연구자들을 위한 상이다. 평가 기준은 연구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여야 하며, 연구 내용이 새로워야 한다. 그 밖에도 모든 연구는 저작권 및 연구윤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이 동해 관련 학술상을 수여함으로써 국내외 연구생 및 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

그림 5. SNS를 활용하여 영토수호의지 전파하는 베트남 시민들
출처 : 베트남 징 홈페이지.

으며, 이를 통한 연구 성과는 실제로 베트남의 동해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국내에서의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해외홍보에도 적극적이다. 2014년 5월 중국이 불법으로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석유시추선 해양 981호를 설치하고 석유를 시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베트남에서는 영유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영토수호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베트남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교민들까지 조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거국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중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반작용은 SNS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컨대, 블로그, 트위터는 물론,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동해를 향한다(Hướng về biển Đông)", "중국의 움직임에 반대한다(Phản đối Trung Quốc)", "호앙사 쯔엉사는 베트남의 영토이다(Hoàng Sa, Trường Sa là của Việt Nam)" 등과 같은 수백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비록 가상공간이지만, 베트남 국민들의 조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다. 베트남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이기에 영토수호를 위한 베트남 사람들의 움직임은 베트남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도 실시간으로 전파되었다. 베트남 국민들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프로필 사진, 커버 사진을 베트남의 국기사진으로 바꾸어 페이스북의 화면을 붉게 물들여 중국의 불법 행위의 부당함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해외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그림 5).

2. 교내활동과 영토교육

1) 교내활동을 통한 영토의식 강화

베트남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초·중·고 및 대학생)은 가상공간인 페이스북에서 벗어나 애국심과 열정으로 곳곳에서 S자형태의 국가 모양을 만드는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매주 월요일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학생들은 S자형태의 베트남 국토 모양과 호앙사 및 쯔엉사 군도 모양을 만든 후, 애국가를 제창하며 호앙사 및 쯔엉사 군도에 대한 특강도 듣는다(그림 6).

이러한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애국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호앙사 및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러한 퍼포먼스는 중국의 불법 행위에 항의하는 성격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호앙사 및 쯔엉사 군도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전 국민의 마음을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림 6. 베트남 영토에 관한 퍼포먼스
출처 : 베트남 법률생활포털; 베트남 지식포털.

2) 교육과정상의 영토교육 내용분석

베트남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된다.[11] 베트남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영토 관련 내용은 역사교과, 지리교과, 시민교육, 그리고 국방교육과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애국심, 민족에 대한 자긍심 등의 용어는 베트남 영토교육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역사 교과서는 세계의 역사와 베트남의 역사 내용이 병렬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의 역사 부분은 베트남의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천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백 년 동안 미국과 프랑스의 침략을 받으면서 기나긴 세월동안 베트남의 봉건 왕조들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지켜왔다. 따라서 베트남의 역사교과서는 세계사 내용뿐만 아니라 건국으로부터 현재까지 독립운동과 항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7학년 역사 교과서에서는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인 몽골의 침략을 받은 베트남 사람들이 항복

표 2. 베트남 역사교과서의 영토교육 관련 내용

학년	단원	내용
7학년 (중2)	14단원 3번의 몽골-원나라침략군과의 항전	원인: 항전에서 모든 국민, 모든 민족들이 적과 싸워서 나라를 지켜왔다.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국민들은 왕조의 명령을 받아 식품, 재산 등을 숨기고 '빈 밭, 빈 집'의 전략을 쓰며, 국민들이 적과 싸울 때 자발적으로 무기를 준비하고 민간 군인들이 왕조의 군인들과 협력하여 몽골군을 수세에 몰아넣고, 식량이 바닥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였다. 의미: 몽골을 3번 쫓아낸 것은 다이비엣(베트남 당시 국명)을 침략하려는 몽골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키고 우리 민족의 주권을 지켰다. 그 당시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욕심이 많은 나라였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비균형적이다. 이는 베트남 민족의 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10학년 (고1)	27단원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과정	조국을 지키는 일은 시대와 시대를 걸쳐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기적을 남겼다. 이는 아주 자랑스러우며, 이러한 전통은 애국심이 강한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136쪽).
	28단원 봉건시대의 베트남 민족의 애국 전통	오래전부터 베트남 땅에 살았던 원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노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또한 평야 지역에 내려가 정착하였다. 그들은 노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면서 조금씩 비엣꼬(Việt cổ) 문명을 만들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반랑(Văn Lang)국가를 세웠다. 국가단위의 교류는 예전의 지역적 애착심 및 감정을 더 큰 감정으로 극대화하였다. 그 감정이 바로 **애국심**이다(137쪽)

출처 : 판응옥리엔, 2011a; 판응옥리엔, 2011b.

표 3. 베트남 지리교과서의 영토교육 관련 내용

학년	단원	내용
12학년 (고3)	단원2 지리적 위치, 영토 범위	베트남은 동양 반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중심 위치에서 가깝다.(13쪽) 베트남의 영토는 내륙, 바다 및 영공을 포함한 하나의 영토이다. (…) 우리나라의 바다는 내륙 수로, 영해, 영해인접지역, 경제특구, 대륙붕을 포함한다. 영해는 바다에서 국가의 주권에 속한 바다지역이다. 베트남의 영해는 12해리(1해리=1852m)이다. 영해의 경계는 바로 바다위에 국경이다.(15쪽) …정치지리 및 군사 지리적 관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유동적인 경제 지역이며, 세계의 정치적 변동과 아주 민감한 지역이다. 특히 동해는 우리나라의 건설, 경제발전 및 안보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공간이다.(17쪽)

출처 : 레퉁, 2011.

표 4. 베트남 시민교육 교과서의 영토교육 관련 내용

학년	단원	내용
10학년 (고1)	단원14 시민과 조국 건설 및 보호	애국심은 시민의 조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덕적 덕목이다(95쪽). (…) 애국심은 베트남 민족의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도덕적 전통이며, 우리 민족의 다른 전통적 가치들의 원천이기도 하다. 베트남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연속적이며, 고통스러운 전쟁과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96쪽). (…) 호찌민 주석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우리 국민은 애국심이 강하다. 이는 우리의 아주 귀중한 전통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국이 침략을 당할 때마다 그 정신은 아주 강하게 발휘되어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견디고 우리나라를 팔거나 우리나라를 빼앗으려는 이들을 가라앉혔다." (96쪽).

출처 : 마이반빈, 2011.

하지 않고 단결하여 이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표 2).

지리교과서는 자연 현상, 지도 읽는 방법, 영토 및 위치 등에 관한 내용 위주로 구성된다. 12학년(고3) 지리교과서에는 베트남의 영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표 3). 베트남의 지리교과서에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동해 명칭이다. 동해에 관한 학술연구나 국제 홍보는 적극적인 반면, 학교 교과서의 동해 명칭 회복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이 특이하다. 베트남에서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지리를 가르치는데, 지리교과는 크게 교양지리, 세계지리, 그리고 베트남 지리로 구성된다. 이 3가지 교과 영역에서 영토에 관한 내용은 베트남 지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4학년(초4), 8학년(중3), 12학년(고3) 지리교과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표 4는 베트남의 시민교육 교과서에 포함된 애국심을 강조한 내용이다. '시민과 조국 건설 및 보호 사업'이라는 열네 번째 단원에서 '애국심은 시민의 조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덕적 덕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민교육의 관련내용을 보면, 베트남의 혁명가 호치민의 교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북한의 교과서와 같은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에는 한국에서 이미 사라진 교련에 해당하는

그림 7.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국방교육
출처 : 붕따우성 정부 홈페이지.

교육과정이 존재하며, 베트남에서는 이를 국방교육이라고 부른다. 2007년 7월 10일자 베트남 정부의 116/NĐ-CP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교육[12]은 국민교육의 일부이며, 국가 건설 과정의 필수 교과이다. 이는 보통교육과정부터 대학 교육과정 및 정치-행정 교육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되는 정규 과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베트남에서는 국방교육이 중요하게 여겨

진다. 국방교육의 학습내용은 주로 체력 및 군사 기술 훈련, 베트남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애국심 및 조국 수호정신 함양,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지식 등이다. 국방교육의 주요 목표는 학습자가 당의 관점, 정책 및 국가의 법에 대하여 잘 알고, 국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2013년 국방교육 제12조).[13)]

Ⅴ. 결론

이 연구는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베트남을 사례로 영유권 문제와 영토교육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독도영유권 문제와 동해 표기명칭 확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베트남의 사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인해 중국 등 주변국들과 갈등 관계에 있다. 특히 중국의 불법적인 점유와 일방적인 조치로 인하여 베트남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지만 베트남은 위축되지 않고, 군사적, 학술적, 교육적 차원에서 그들의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낸 베트남의 영유권 관련 학술연구와 대외홍보, 그리고 영토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에서는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가 있는 동해(Biển Đông) 해상 공간 및 바다명칭 확산을 위한 연구와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베트남 사회과학원, 동해연구재단, 베트남 법가회, 하노이대학 동남아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매년 동해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해연구재단에서는 대학원생들과 학자들을 대상으로 학술상을 수여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이 동해와 그들의 섬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해외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대외홍보에도 적극적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의 불법 행위에 관해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하였다. 비록 가상공간이지만,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하였으며 해외의 많은 친구들로부터 관심과 공감을 얻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영토에 대한 관심과 영토수호 의지를 심어주고 있다. 먼저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에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내활동을 통해 동해상의 섬들(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특강도 듣고, 학생들 스스로 베트남의 영토 형상을 만드는 퍼포먼스에 참여함으로써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를 몸으로 느끼게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애국심 함양과 영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주로 역사, 지리, 시민교육, 국방교육 등의 교과를 통해 습득하게 되는데, 베트남의 국방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없어진 교과인 교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베트남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배울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 지배적일 수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은 베트남은 영토교육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우리의 영토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뒤돌아보면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외의 사례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

註

1) 싼사시(三沙市)는 남사, 서사, 중사군도를 통합 관할하는 행정도시이다.
2) 한국경제 2016년 10월 21일자.
3) 동아일보 2016년 9월 14일자.
4) 서울신문 2016년 8월 11일자.
5) 해외의 일부 학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Klinghoffer는 과거 서구인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 명칭을 한국해(Sea of Korea)로 표기했던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인들은 Sea of Korea 명칭보다는 East Sea 명칭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외부자들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명칭이라기보다는 국수주의적 발로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Klinghoffer, 2006:32-33).
6) 우리 정부가 20년 이상 동해 명칭의 세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중국과 베트남에 우리의 동해 명칭과 유사한 명칭이 있다는 것은 세계 여론을 이끌고 있는 강대국들의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김

걸, 2015:142).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 당국에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3자가 받아들이기 용이한 명칭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상균, 2016:490).

7) 베트남 외교 아케데미 홈페이지
8) 베트남 동해연구재단 홈페이지
9) 베트남 법가회 홈페이지
10) 동해연구 홈페이지
11) 1956년~1976년까지 초등학교 4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10학년제였던 북베트남은 1975년 남북이 통일되면서 1976년부터 남베트남의 교육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1979년 11월 1일 베트남 공산당 중앙 정치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시행문에 근거하여 1981년 3월 27일「135-CP 보통교육시스템 변경에 관한 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부터 단계별로 11학제(초등 5년)로 바꾸고 1992년 12학제(중등 4년)로 변경되었다. 요컨대, 남베트남의 학제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이미 12학제로 운영되었는데, 10학년제였던 북베트남은 단계적으로 학제를 늘려 1992년부터 베트남의 남북학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되었다(베트남 법제홈페이지).
12) 국방교육(Giáo dục quốc phòng: National defense education)은 2001년도부터 베트남의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정규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는데, 4년제 대학은 165교시, 3년제 대학은 135교시, 전문대학은 120교시로 시행되고 있다. 국방교육은 역사나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전문 군인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론 및 실습 등 2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13)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_page=1&mode=detail&document_id=169384

참고문헌

김걸, 2015, "대한민국 동해의 국제표준 명칭에 대한 발전적 대안 모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 137-145.

김기태, 1992, "베트남 역사에 나타난 영토 확장 고찰," 동남아연구, 2, 33-63.

김성광, 2015, "베트남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루이 아르작(Louis Arsac), 2014, "한국의 지정학, '영향력 외교'로 나아가는 길," 영토해양연구, 8, 108-137.

변창구, 2013,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과 미·중 관계," 한국동북아논총, 69, 5-22.

송정남, 1999, "베트남 남부의 영토확장과 토지제도 일고찰: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까지를 중심으로," 역사화 경계, 36, 49-71.

송정남, 2012, "베트남 후레왕조의 영토확장," 동남아연구, 22(1), 39-65.

신성원, 2006, "베트남-중국 영토분쟁 해결요인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승복·최재영, 2015,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베트남·중국 관계와 조선·중국 관계의 변화, 그리고 두 관계의 상호작용," 영토해양연구, 9, 124-155.

유철종, 2005, "남중국해의 남사군도(南沙群島) 영토분쟁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8(2), 1-36.

이상균, 2016, "해양명칭 논쟁의 본질과 해법 모색: 한국의 동해 명칭을 사례로," 국제고려학, 16, 463-493.

Klinghoffer, A., 2006, *The Power of Projections: How Maps Reflect Global Politics and History*, London: Praeger.

Neuyen, T., 2013, 'Vietnam's actions to assert and enforce its sovereignty over the East Sea during the period 1884-1954: An approach from France's archives, *Southeast Asian Studies*, Hanoi, 15-24.

Nguyễn, N., 2003, Quá trình xác lập chủ quyền của Việt Nam tại quần đảo Hoàng Sa & Trường Sa, luận án tiến sĩ, trường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Đại học Quốc gia Thành Phố Hồ Chí Minh(응웬냐, 2003, "호앙사 및 쯔엉사 군도에서의 베트남의 주권 확립 과정," 호치민 국립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Nguyễn, N., 2014, Chủ quyền Việt Nam tại Hoàng Sa và Trường Sa qua tài liệu tiếng Anh, Tạp chí phát triển KH&NG, 17(2014-1), 30-47(응웬냐, 2014, "영어 자료를 통한 베트남의 호앙사 쯔엉사에 대한 주권," 과학기술저널).

Nguyen, T., 2015, The Territorial Sino-Vietnamese Boundary Dispute, from 1885 to the Present,

Territory and Seas, 10, 32-63.

Xu, P. and Cao, S., 2014, The Sovereignty of XishaQundao: An analysis of disputes over the paracel on the basis of western maps dating back from the 16th-19th Centuri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 19-35.

Yi, S., 2014, The geopolitics of seas and the cartography of naming seas: The name Sea of Japan reflecting an imperialist ideology, *Asia-Pacific Journal of Marine Science & Education*, 4(1), 29-43.

동아일보, 2016년 9월 14일자, "'남중국해' 접어두고 경제 택한 '베트남식 실리 외교'"; http://news.donga.com/3/all/20160914/80290685/1

서울신문, 2012년 4월 29일자, "영유권분쟁 격랑의 남중국해... 中군사개입 시사 '일촉즉발'"; 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120430016003

서울신문, 2016년 8월 11일자, "베트남, 남중국해에 中인공섬 타격용 로켓 발사대"; www.seoul.co.kr/ news/ newsView.php?id=20160811022011

세계일보, 2016년 8월 11일자, "베트남이 중국을 다루는 지혜"; www.segye.com/content/html/2016/08/11/20160811003241.html?OutUrl=naver

한국경제, 2016년 10월 21일자, "중국 필리핀, 남중국해 문제 미뤄두고 경제협력, '양국관계는 봄날'"; http://hei.hankyung.com/hub01/201610212910I

레통, 2011,「지리12」(고등3)(Le Thong, 2011, Địa lí 12,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Việt Nam).

마이반빈, 2011,「시민교육10」(고등1)(Mai Văn Binh, 2011, Giáo dục công dân 10,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Việt Nam).

판응옥리엔, 2011a,「역사7」(중학교2)(Phan Ngọc Liên, 2011, Lịch sử 7,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Việt Nam).

판응옥리엔, 2011b,「역사10」(고등1)(Phan Ngọc Liên, 2011, Lịch sử 10,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Việt Nam).

두산백과 홈페이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70888&cid=40942&categoryId=31787

베트남 탄니언신문, 2015년 2월 26일 중국의 삼전 내용 분석(Le Vĩnh Trường, 2015, Ly thuyết Tam chiến của Trung Quốc, www.thanhnien.com.vn).

베트남 국제연구 홈페이지, 2015년 5월 24일자, "동해에서의 중국의 허구 작품 및 여론전쟁"(Nguyễn Hồng Thao, 2015, Cac tac phẩm hưcấu va chiến tranh dư luận của Trung Quốc trenbiển đong, nghiencuuquocte.org).

베트남 동해연구 홈페이지, http://nghiencuubiendong.vn

베트남 동해연구재단 홈페이지, www.seasfoundation.org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cinet.vn/articledetail.aspx?articleid=30101&sitepageid=415#sthash.cb97Hl6k.dpbs

베트남 법가회 홈페이지, www.hoiluatgiavn.org.vn

베트남 법률생활 홈페이지, www.doisongphapluat.com

베트남 법제 홈페이지, http://thuvienphapluat.vn/van-ban/Giao-duc/Quyet-dinh-135-CP-he-thong-giao-duc-pho-thong-moi-43053.aspx

베트남 사회과학 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en. vass.gov.vn/Pages/Index.aspx

베트남 온라인강의도서관 홈페이지, http://baigiang.co/bai-giang/giao-duc-bao-ve-tai-nguyen-va-moi-truong-bienhai-dao-o-cap-tieu-hoc-2260/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홈페이지, www.dav.edu.vn

베트남 지식포털, http://kienthuc.net.vn

베트남 징 홈페이지, http://news.zing.vn/cu-dan-mang-dong-loatthay-avatar-do-ruc-post315645.html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교 홈페이지, http://repository.vnu.edu.vn/bitstream/VNU_123/11693/1/vai_tro_cua_cong_tac_giao_duc_quoc_phong.pdf

베트남 해양경계 홈페이지, www.biengioihaidao.wordpress.com

붕따우성 정부 홈페이지, http://vungtau.baria-vungtau.gov.vn

교신 : 최희,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서호관 304B (이메일: eksrns06@naver.com)

Correspondence : Hee Choi, 22212, 100 Inha-ro, Nam-gu, Incheon, Korea, 304B Seohogwan, Inha University (Email: eksrns@naver.com)

투 고 일: 2017년 3월 22일
심사완료일: 2017년 4월 9일
투고확정일: 2017년 4월 15일